

신문으로 읽는 영상뉴스

전남일보 유튜브 <https://youtu.be/RIX-F4lcBQo>



이날 행사는 광주 남구 수피아여고

전남일보 #태극기물결 #대한독립 #우리 민족

104년 전 독립만세운동 광주서 재현



3·10 광주만세운동 기념행사 학생·시민 등 1000여명 참여 양림동 등 행진·거리극 마련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양림동주민자치회의 시민거리극

104년 전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만세 함성과 태극기 물결이 광주에서 다시 일었다.

지난 10일 광주 남구 수피아여고에서 3·1 만세운동 104주년을 기념해 광주 3·10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렸다.

1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수피아여고 3·1 만세운동기념 동상 앞에서 시작돼 3·1 만세운동길, 옛 송일학교터 양림동거리를 거쳐 부동교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며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다.

행사는 광주지역 만세 운동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풍물놀이로 막을 열었다. 이어 수피아여고 학생회가 준비한 만세 퀘یز 퍼포먼스와 양림동주민자치회의 거리극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양림동주민자치회는 1919년 3·10 만세운동 중 일본 순사에 의해 원팔이

잘린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로 시민 거리극을 펼쳤다. 거리극 중 팔이 잘린 윤 열사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 장면이 시작되자 지켜보던 학생들과 시민들도 같이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수피아여고에서부터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수피아여고 2학년 학생들은 거대한 태극기를 따라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당시 만세운동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행진은 광주 3·10 만세운동 닷새 전 거사를 모의한 남궁혁 장로의 자택을 지나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25명이 투옥된 옛 송일학교터를 거쳐 본격적인 만세운동이 시작된 부동

교까지 이어졌다. 수피아여고 2학년 김유민양은 "당시 만세운동을 한 선배들이 없었다면 지금을 누리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3·1 운동과 관련해 더 많은 역사 교육을 받아 선배들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교에서 학생들의 만세행진을 지켜보던 설모씨는 "요즘 위안부 보상 해결 등 역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가슴이 아픈데 (3·10만세운동의 역사를) 닦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좋다"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3·10 운동의 정신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

기고 이세영 광주 빛고을50+센터·대리



빛고을 50+트렌드 특강 '백세시대 즐거움' 드려요

"왜 엄마만 밥을 해야 하나요.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한 장년층 남성이 광주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인 빛고을 50센터(센터장 정찬기)가 진행하는 요리교실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들려준 얘기가. 그동안 가족의 식사준비는 늘 아내의 몫으로 생각해 왔던 터다. 은퇴후에도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아빠에게 모심코 톡 던진 말에 충격을 받았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리를 배워 보기로 작심했다.

다행히 50+센터가 진행하는 요리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요리법을 배웠으며 아내와 딸을 위해 헌신하게 됐다고 즐거워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는 시대에도 가사노동은 아직도 아날로그 노동문화에 머물러 있다. 힘든 가사노동에도 평생 불평하지 않고 집안살림을 도맡아 왔던 아내들에게 가사수당 지급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가사수당 지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8기 '내일이 빛나는 광주시'가 농민수당, 시민수당, 가사수당 지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준비했다고 했다.

강 시장은 "익숙한 것과 결별이 쉽지 않았지만 관행과 관습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고자 소통과 토론을 바탕으로 공직

자들과 원팀으로 노력했다"며 "소신과 창의를 가져야 하며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민 행복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계에서 1차~4차 산업혁명시대가 기계중심의 산업이었다면 5차산업은 취미나 여가 생활 문화 산업(오락·패션 등)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분류했다. 50+센터도 급변하는 문화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년층 시민의 인생 2막이 즐겁고 당당하고 단맛 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필자는 빛고을 50+센터에서 '50+트렌드 특강'을 담당하고 있다. 내 부모같은 시민들이 센터를 찾아와 뭔가를 배우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흐뭇해지고 존경심마저 들었다.

인생2막은 건강과 문화, 여가, 취미 즐기기 등을 통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세월로 여행하는 삶을 누렸으면 한다.

광주시의 시정 목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장년층들이 활동하며 보람을 느낄길 바라며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인 빛고을 50+센터가 더욱 빛나도록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빛고을 50+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터넷 빛고을 50+센터 포털(www.gj50plus.or.kr), 센터 (062-228-5050)로 문의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올랜도 보트쇼에서 양종맞은 구멍조끼를 입은 수상스키 다람쥐 '트위기' 두 마리가 수상 스키를 타며 방문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AP/뉴시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관 천연가족 리플라이너 쇼파석 (키블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포티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주최처 안내

본관(1관~10관) | 해당의 거리 | 그랑하이로 | 관음로 | 관음로 | 관음로 | 관음로 | 관음로 | 관음로 | 관음로 | 관음로

전용주최처
- <주간&야간> 신동아 주최처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명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제휴주최처
- <주간&야간> 동아주최처, 파레스주최처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최처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오후 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최이유,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리플라이너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최 가능 (영화: 1관~10관 한정)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스즈메의 문단속
2관	소울메이트/플레인
3관	사참! 신들의 분노
4관	스즈메의 문단속
5관	소울메이트
6관	사참! 신들의 분노 / 이니세린의 밴시
7관	대외비 / 서치 2 엔트맨과 와스프:퀸메이니아
8관	플레인 / 멍멍이 / 카운트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더빙)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